

【 해외금융 뉴스: 유럽 】

ING 1/4분기, 적자 규모 대폭 감소

- ING는 2009년 1/4분기 순손실이 발생하였으나, 그 규모는 전분기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고 밝힘.
 - ING의 2008년 4/4분기 순손실은 -30.73억 유로였으나, 2009년 1/4분기 순손실은 1/10 규모인 -3.05억 유로로 크게 감소함.
 - 은행영업부문은 2008년 4/4분기 -18.41억 유로에서 6.98억 유로의 흑자로 전환되어 2008년 1/4분기 수준으로 반등함.
 - 도·소매, ING Direct, 기업 부문 모두 순이익이 크게 증가함.
 - 보험영업부문은 2008년 4/4분기 -24.69억 유로에서 -9.79억 유로로 크게 개선됨.
 - 자산가치 폭락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며, 유럽지역, 미주지역, 아시아태평양지역 및 기업 부문 모두 순손실이 발생하였으나, 그 규모는 2008년 4/4분기의 절반 수준이며, 특히 기업부문은 크게 개선됨.

- ING는 최악의 시장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해 비용절감, 리스크 축소(de-risking), 부채감소(de-leveraging)를 최우선하였고, 기존의 방만한 사업을 정리하여 핵심 사업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남.
 - 2009년 1/4분기 유럽 시장 환경은 주식시장 침체, 신용위험 증가, 부동산가격 하락 지속, 대출 손실 증가 등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됨.
 - 리스크 축소는 네덜란드의 비유동자산 구제 프로그램(Illiquid Assets Back-up Facility)에 따라 은행부문의 Alt-A 자산유동화증권의 노출 규모를 80%(130억 유로)축소 시킴으로써 가능해짐.
 - 1,100억 유로의 은행부문 부채규모 감소 계획을 진행한 결과 3월말 현재 790억 유로의 부채가 감소됨으로써 은행부문의 Tier 1 ratio는 2008년말 9.3%에서 9.6%로 상승함.
 - 비용 발생 억제 방안이 시행됨과 동시에 기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은행부문의 2009년 인력감소 계획 대상 2,800명 중 1,478명(52%)이 1/4분기에 조정되었고, 보험부문의 경우 4,200명 중 3,903명(92%)이 조정됨.

(ING 1/4분기 재무제표, Financial Times 5/13)